

##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종단적 인과관계

성 준 모

(나사렛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사회 스트레스 이론을 근거로 한국복지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정도와 우울증 의심군은 시간의 진행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위소득 기준 소득계층의 상승, 가족관계 만족 증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증가, 주거환경 만족 증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사회 스트레스 요인의 감소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및 개입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베이비붐 세대 남성, 사회 스트레스, 우울, 패널 회귀분석

### 1. 연구의 필요성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출산율이 3.0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대 인구 코호트(Cohort)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출생한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총 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가 50.3%인 3백 5십 8만 7천여명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0).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간 남성의 우울은 여성의 경우보다 발병률이 낮고 남성에게 대한 고정된 사회문화적 성역할 인식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성인 남성들은 우울로 인한 감정과 증상을 감추려고 하고 대체기제를 통해서 자기중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이들의 우울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abinowitz and Cochran, 2007). 그 간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이전 세대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지만 상당수가 제조업과 같은 소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세대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장석인, 2011). 가족과 사회를 위해 일벌레(workaholic)로 평생을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안정한 직업과 부양부담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장미자·김득성, 2011). 이러한 현상은 이들의 불안정한 노후 소득보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공적연금보다 개인연금이나 자산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천현숙, 2011).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 발병 연령은 낮아지는 등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Piazza and Charles,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6.8%였다(정경희 외, 2010). 이는 2006년 실시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자료의 50대(50~54세) 남자 우울증 유병률 5.4%(보건복지부, 2006)보다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에 대한 요구를 가진 경우가 5.9%로 적지 않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0년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54세 남성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56.7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의 자살률 48.5명보다도 많은 수치로, 이러한 자살자 수와 증가율은 여성의 경우보다 매우 심각한 것으로(메디컬투데이, 2011년 9월 21일 기사)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은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김희경, 2006; 이원진, 2010). 첫째, 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들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소비지출 규모는 연령대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자신의 노후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들은 은퇴 후 경제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나일주 외, 2008; 정경희, 2010; 장석인, 2011; 천현숙, 2011). 이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이중적 부양책임까지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지경, 2010).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담은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반응으로서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직업적 측면에서도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의 환경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주관적 삶의 질 저하와 불안감의 증가는(강모성 외, 2008) 우울을 가속화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요인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중요한 우울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27%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취약계층의 유병률이 높아 계층

간 건강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특히, 암, 순환기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기대여명의 증가분이 여성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우덕, 2011). 이들은 노후에 예상되는 건강악화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년기 이후의 신체적 쇠퇴와 만성질환의 발병 등은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장미자·김득성, 2011)으로서 우울감을 증가시킨다. 셋째,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관계를 통한 가족의 지지 기반이 부족해짐으로써,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가족 구조와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즉, 핵가족화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구조 재편, 산업사회에서 남자의 부양 의무 증가 등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노동시간을 과도하게 늘리고 가정에서는 남성이 소외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김지경, 2010). 사회적 관계의 빈도가 줄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들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감 증가와 우울증 발병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요인으로 가정해볼 수 있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와 전문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직접 연구한 국내 연구는 정순돌과 구미정(201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와 예비노인, 노인 세대 등의 우울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숙(2003)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과 중년기 남성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의 연구들은 주로 중년기 남성을 포괄하여 심리적인 변인과 다양한 사회환경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중년남성의 우울(한경혜·송지은, 2001; 이정인 외, 2003; 김희경, 2006), 심리적 위기감(이은아·정혜정, 2007), 심리적 복지감(김양호, 2005; 강모성 외, 2008; 장미자·김득성, 2011) 등과 같은 내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관련한 유명율을 제시한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0년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중 베이비붐 세대의 자료를 재분석한 보고서가 유일하다(정경희 외, 2010). 이 외의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복지패널 등의 데이터에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우울을 측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 외국 연구들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을 연구한 예는 거의 없으며,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과 우울 심각성을 다루고 대책을 논의한 연구(Piazza and Charles, 2006; Williams, 2008),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Hartman-Stein and Potkanowicz, 2003), 중년기 남성의 정신적 스트레스(Elsie, 1982)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Lang et al, 2011), 중년기 이후 우울변화 양상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Brockmann, 2010), 남성 우울증의 특성과 개입을 다룬 연구(Cochran and Rabinowitz, 2003; Rabinowitz and Cochran, 2007)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특성을 연구한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표성 있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스트레스 이론을 근거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다소 해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요인으로 투입한 변수들의 특성을 연도별로 알아본다. 둘째, 우울특성을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우울정도의 변화와 우울군의 비율을 알아본다. 셋째,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넷째, 연구결과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이 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정책적·실천적 사회복지 개입 방향을 논의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 스트레스 모델(social stress model)은 의학적 개념과 심리학적 개념, 사회학적 개념을 통합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내적 환경보다는 외적 환경에, 과거보다는 현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생활사건, 그리고 환경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인숙, 1992). 이는 사회경제적 상태가 정신건강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회적 원인론(social causation)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ink and Dohrenwend, 1989). 즉,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보다 열악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거나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갑작스런 변화로 인해 재적응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생활사건(life events)과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 또는 스트레스 생활조건(chronic stressors, stressful life conditions)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스트레스 생활조건은 지속되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말하며,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 잦은 거주지 이동, 열악한 주거환경, 실직,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개인의 적응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인숙, 1994).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 특징과 가족 생활주기를 고려하면, 이들이 겪는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문제 등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로 작용하여 심리적 문제인 정서적인 우울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은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울감에 초점을 두어 측정·분석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성(gender)역할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때문에 우울로 인한 감정과 행동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Rabinowitz and Cochran, 2007).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우울감을 측정하는 것은 베이비 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측정된 주관적 우울감은 객관적 진단을 통해 제시된 우울증 유병율과 절대치로 비교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우울 장애의 유병률이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우울증을 제시한 예는 주관적인 우울감을 측정할 예와 구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사회 스트레스 모델의 개념과 관점을 수용하여 구성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내적인 성격이나 심리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외적인 생활이나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이들의 우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사건보다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생활조건으로서 인구학적 특성, 관계특성, 주거특성, 건강특성, 경제적 특성 등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회복지적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고찰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은 여러 가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을 직접 연구한 예는 매우 적지만, 우울과 관련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경제적요인, 건강요인, 주거요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요인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경제적 요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 남성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경제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Sarmiento and Cardemil, 2009). Lang 외(2011)는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는 가구의 낮은 소득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에서는 중년기 이후의 불평등한 경제조건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논의하고 있다.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Chiu and Ho, 2006).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혜택도 더 많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도 향상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이전세대보다 더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문제를 보인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인구 코호트 조사에서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증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우울증 진단 유병률은 더 늘어나고 최초 발병 연령은 계속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Piazza and Charles,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이비 붐 세대 남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주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계층이 늘어남으로 인해 전반적인 우울의 발현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국내의 관련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경제적 요인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중 가족의 소득정도는 우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 남성의 소득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낮아지고 심리적인 복지감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인 외, 2003; 장미자·김득성, 2011). 이미숙(2003)은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년기 남성의 우울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는 사회 스트레스 이론으로 경제적 문제와 우울의 관계를 조망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모성 외(2008)는 가족의 재정은 가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년 남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우울의 척도인 자살사고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진(2010)은 경제지위 변화와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수급(빈곤)진입이 우울을 증가시키며, 수급탈출 경우중에서 탈빈곤을 동반하는 경우 우울수준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빈곤진입과 빈곤탈출 등 빈곤지위의 변화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우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순들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은아와 정혜정(2007)의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위기감은 줄어든다고 보고하여 주관적인 경제 인식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불평등 의식이 우울과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Miech and Shanahan, 2000)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인 경제적 특성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경제수준이나 만족 등 주관적인 요소가 불평등감이나 박탈감과 같은 정서적 무력감을 유발하여 우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 관련 요인을 들 수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27.1%가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란 외, 2010). Hartman-Stein과 Potkanowicz(2003)는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와 관련한 연구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만성적인 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중년기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건강상태는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장미자·김득성, 2011), 이들의 만성적인 건강문제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미숙, 2003)고 볼 수 있다. 정순들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높으면 우울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아지며, 건강문제로 인한 활동제한이 따르면 우울수준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중인 질환의 유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만성질환의 유무보다는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은아와 정혜정(2007)도 중년 남성의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위기감은 줄어든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셋째, 주거는 생애주기 상 중년기 이후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게 가족생활의 근간이다. 주거(주택)를 매개로 가족공동체 생활과 개인 사생활의 질이 결정되며 개인의 사회적 자원으로 중요하다. 또한, 주거의 결핍은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연옥 외, 2005; 임세희, 2010). Wells와 Harris(2007)는 불안정한 주거상태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임재현, 2011: 284에서 재인용). 임세희(2010)는 이를 주거빈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주거빈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임재현(2011)도 주거빈곤의 영향에 대한 구조모델 분석연구에서, 주거빈곤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주관적 건강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허준수와 유수현(2002)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의 하위요인중 부정적사고와 불행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주거 소유형태가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주거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또한 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강창호·박창수, 2009). Galster(1987)는 주거만족도를 주거에 대한 필요나 욕구와 현재의 주거상태 사이의 지각된 차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로 인한 정서적 반응의 표현은 다양한 변수와의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박성복, 2011: 3-4에서 재인용)고 서술하였다. 이는 주거 만족도와 우울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DSM-IV에서는 남성의 우울증상(masculine-specific symptoms)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징적 증상중 하나로 대인관계의 어려움(Cochran and Rabinowitz, 2003)을 우울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남성의 우울은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Chiu와 Ho(2006)가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년 남성의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이들의 가족내 역할을 축소시킴으로써 중요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가족관계로 인한 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숙(2003)은 사회 스트레스 이론에 입각하여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직업 스트레스보다 가족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와 부부관계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한경혜와 송지은(2001)은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변화 등 가족관계 요인이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중년 남성의 부부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위기감은 줄어들기 때문에(이은아·정혜정, 2007), 이로 인한 우울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장미자와 김득성(2011)의 연구에서도 중년남성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과 부부관계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강모성 외(2008)는 부부관계가 가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또한 베이비붐세대 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사회적 관계망은 이들의 정서적인 기능에 작용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김양호, 2005).

정순돌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횡수가 증가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우울에 대한 종단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만족정도가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성준모, 2010).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 정신건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Williams, 2008). 우선,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은 나이와 관계가 있지만 관계의 방향은 연구들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경혜와 송지은(2001)은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은아와 정혜정(2007)도 중년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위기감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김양호(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줄어들어 위기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인 외(2003)의 연구에서도 중년기 남성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미자와 김득성(2011)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이은아와 정혜정(2007), 이정인 외(2003)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정서적 위기감과 우울수준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순돌과 구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Miech와 Shanahan(2000)은 우울과 교육수준 사이에서 나이의 증가는 우울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요소로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나이의 증가와 함께 우울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종교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종교의 유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김양호, 2005)도 있으나, 관계가 없다는 보고(정순돌·구미정, 2011)도 있다. 혼인상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수준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정인 외, 2003; 박영란 외, 2010; 정순돌·구미정, 2011). 우울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거주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Galea 외(2007)는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차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우울발생률이 2.19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병일과 곽현근(2005)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주민들의 우울 수준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특히, 지역의 빈곤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우울을 강화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영란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조사에서 도시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우울증상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가구원 수는 정서적 지지와 관련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우울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인 가구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며(박영란 외, 2010; Zunzunegui et al, 2007), 이는 노인일 경우 더 심각한 우울문제로 나타난다(Kaneko et al, 2007)고 보고되고 있어, 가족원 수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고려해 볼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원자료로, 1차년도(2006년)부터 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90%자료로부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 30,000가구를 2단계 층화집락추출하여,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패널가구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중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우울 척도에 응답하지 않아 분석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패널 유지율은 1~4차년도까지 유지된 경우가 65.1%, 3년 이상 유지된 경우가 77.67%였으며, 개인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패널유지와 탈락에 따른 분석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차년도 1,093명, 2차년도 961명, 3차년도 883명, 그리고 4차년도 864명이다.

#### 2) 분석변수

##### (1) 우울

우울척도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통하여 측정되었고, 20문항의 원척도를 축약한 총 11개 문항의 척도가 활용되었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척도로 조사당시 과거 1주일간 스스로 느끼는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전체 문항은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신체적 저하(2 문항), 우울정서(4 문항), 긍정적 정서(2 문항), 그리고 대인적 실패감(3 문항) 등이다. 자료 분석시 2개 문항('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없이 생활하였다')은 역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1점(극히 드물다)에서 4점(대부분 그랬다)까지이며, 분석시에는 변수 값을 0점에서 3점까지로 리코딩한 합 점수를 사용하였다. 원척도 환산값을 활용하여 우울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합 점수에 11/20을 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합 점수가 16보다 높으면 우울증 진단을 의심할 수 있다. 우울의 4가지 하위요인은 요인의 평균치를 구하여 기술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응답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연도별로 각각 .887, .878, .857, .853 등으로 나타났다.

## (2) 관계 요인

관계 요인과 관련된 변수는 가족관계 만족 정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정도를 통해 알아 보았다. 이는 대상자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관계의 만족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표시하도록 한 값이며, 분석에서는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 (3) 주거 요인

주거 점유형태, 주거환경만족 등의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여 주거 요인을 알아 보았다. 주거 점유형태는 현재 주거지가 자기소유(자가)인 경우와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비자가)의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비자가의 경우는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거환경 만족은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표시하도록 한 것이며 단일문항을 통해 얻어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건강 요인

만성질환의 유무와 건강 만족정도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성질환에는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라도 정기적으로 투약과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이분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건강 만족은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를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까지 표시하도록 한 것이며 단일문항을 통해 얻어진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5) 경제 요인

경제 요인은 가족의 경제규모와 관련하여 수치로 제시된 가족의 객관적 경제 요인과 대상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경제관련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경제 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객관적 경제 요인으로는, 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구분, 가구의 총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연간 경상소득, 가족의 월 생활비, 가족의 총 부채액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위소득(균등화 소득)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은 빈곤층의 진입과 탈출과 같은 소득계층 변화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절대빈곤 가구의 구분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인 경제 요인은 모두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 만족, 수입 만족, 현재 경제생활 수준, 5년 후 경제수준 예상 등에 대한 대상자의 만족과 인식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파악하여 평균치를 통해 알아 보았다.

## (6) 통제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지역, 나이, 교육수준, 종교, 혼인상태, 가족 수 등을 통제변수로 지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구분은 전국의 조사지역을 도시지역과 농촌(도농 복합지역 포함)지역으로 구분한 이분변수를 활용하였다. 나이는 각 년도별 나이를, 교육수준

은 무학(1점)에서 대학원 이상(7점)까지의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교는 유무를 기준으로 이분 변수를 활용하였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이혼, 별거, 사별 등이 해당된다. 가족수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내 가족의 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의 <표 1>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표 1> 변수정의

변수 구분	변수형태	변수명	정의
우울	서열	CES-D 11	0점(극히 드물다) ~ 3점(대부분 그랬다)
통제 요인	dummy	지역	0 = 농촌지역, 1 = 도시지역
	연속	나이	단위(세)
	서열	교육수준	무학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이하 =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 4 전문대학 졸업 이하 = 5 대학교 졸업 이하 = 6 대학원 이상 = 7
	dummy	종교	있음 = 1, 없음 = 0
	dummy	혼인상태	0 = 배우자 없음, 1 = 배우자 있음
관계 요인	연속	가족 수	단위(명)
	서열	가족관계 만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주거 요인	서열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dummy	주거 점유형태	0 = 비자가 1 = 자가
건강 요인	서열	주거환경 만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dummy	만성질환 여부	0 = 만성질환 없음, 1 = 만성질환 있음
건강 요인	서열	건강 만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경제 요인	객관적 경제요인	dummy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	0 = 균등화소득의 60% 이하 1 = 균등화소득의 60% 초과
		연속	경상소득	단위(연, 만원)
		연속	총 생활비	단위(연, 만원)
		연속	총 부채액	단위(연, 만원)
	주관적 경제요인	서열	수입 만족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서열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1 = 매우 가난 2 = 가난 3 = 보통 4 = 부유 5 = 매우 부유
		서열	5년후 경제수준 예상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된 자료분석 방법은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이며, 분석을 위해 STATA 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중 출생연도와 성별을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연도별로 추출한 다음, 자료점검과 연도별 자료 병합을 실시하였다. 자료점검을 통하여 응답이 부실한 사례는 일부 제거하였으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개인식별 기호를 중심으로 개체 병합(case merge)하는 방법으로 패널자료 변환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을 위해 개인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특성을 기술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변수별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등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의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하였다. 패널 회귀분석은 GLS(Generalized Least Squares)의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이 년도별로 중복되므로 일반적으로 다변량 분석에서 가정하는 집단간의 이분산성, 상관관계, 자기상관 등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다. 개인 ID를 패널의 기준변수(panel variable)로, 각 연도를 시간변수(time variable)로 지정하여 분석하였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오차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오차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2>의 내용과 같이 알아 보았다. 거주지역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하여 농촌지역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지역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평균 나이는 46.71세(표준편차=2.59)부터 49.67세(표준편차=2.57)세까지로 나타났으며, 동일 집단에 대한 패널조사의 특성상 매년 평균 1세 정도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44.6%~4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학교 졸업자가 14.8%~19.2%로 많았다. 종교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 조사당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3%로 다소 많았으나, 2009년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48.3%로 줄어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연도별로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3.9%~86.2%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 비해 2009년에는 2.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수는 3.58명~3.7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는 부부의 결혼상태 변화와 패널조사의 신규대상 진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hi-Square F test
지역 구분	도시지역	909	(83.20)	786	(81.80)	712	(80.60)	698	(80.80)	2.726
	농촌지역	184	(16.80)	175	(18.20)	171	(19.40)	166	(19.20)	
나이(평균,표준편차)		46.71	(02.59)	47.71	(02.56)	48.71	(02.56)	49.67	(02.57)	235.025***
교육 수준	무학	5	(00.50)	4	(00.40)	4	(00.50)	5	(00.60)	-
	초등학교	120	(11.00)	109	(11.30)	100	(11.30)	96	(11.10)	
	중학교	161	(14.70)	146	(15.20)	140	(15.90)	142	(16.40)	
	고등학교	488	(44.60)	435	(45.30)	411	(46.50)	408	(47.20)	
	전문대학	72	(06.60)	60	(06.20)	57	(06.50)	53	(06.10)	
	대학교	210	(19.20)	175	(18.20)	140	(15.90)	128	(14.80)	
	대학원 이상	37	(03.40)	32	(03.30)	31	(03.50)	32	(03.70)	
종교	종교 있음	547	(50.30)	502	(52.30)	448	(51.00)	417	(48.30)	3.134
	종교 없음	541	(49.70)	457	(47.70)	431	(49.00)	447	(51.70)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942	(86.20)	813	(84.60)	742	(84.00)	725	(83.90)	2.581
	배우자 없음	151	(13.80)	148	(15.40)	141	(16.00)	139	(16.10)	
가족 수(평균, 표준편차)		3.73	(01.12)	3.67	(01.14)	3.64	(01.16)	3.58	(01.17)	2.770*

\*p<.05 \*\*p<.01 \*\*\*p<.001

## 2) 관계 및 주거 요인

가족관계 만족 정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정도를 <표 3>과 같이 알아 보았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늘어 나다가, 2009년에는 2006년 정도로 만족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 또한 2008년까지 늘다가 2009년에는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조사대상자들은 사회적 친분관계 보다는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관계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F - test
가족관계 만족 (평균, 표준편차)	3.85(0.73)	3.90(0.79)	3.93(0.82)	3.84(0.75)	2.988*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평균, 표준편차)	3.55(0.79)	3.75(0.92)	3.78(0.78)	3.61(0.85)	17.217***

\*p<.05 \*\*p<.01 \*\*\*p<.001

## 3) 주거 요인

대상자의 주거특성인 주거점유 형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 4>와 같이 알아 보았다. 주거지가 자기소유인 경우는 2006년 57.8%에서 2009년 59.4%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증가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는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주거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hi-Square F - test
주거 점유	632(57.80)	558(58.10)	510(57.80)	513(59.40)	.632
자가 비자가	461(42.20)	403(41.90)	373(42.20)	351(40.60)	
주거환경 만족 (평균, 표준편차)	3.24(0.88)	3.21(0.97)	3.35(0.96)	3.27(0.94)	3.641*

\*p<.05 \*\*p<.01 \*\*\*p<.001

## 4) 건강 요인

만성질환의 경험여부와 건강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 5>와 같이 분석하여 건강특성을 알아 보았다.

만성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는 2006년 20.8%에서 2009년 40.4%로 시간에 따라 2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는 2006년에 3.42(표준편차=1.02)로 가장 높았고 2007년에 감소하였다가 이후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3.35(표준편차=0.99)는 양상을 보였다.

〈표 5〉 건강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hi-Square F - test
만성 질환	있음	227 (20.80)	281 (29.20)	304 (34.40)	349 (40.40)	95.791***
	없음	866 (79.20)	680 (70.80)	579 (65.60)	515 (59.60)	
건강 만족 (평균, 표준편차)		3.42 (1.02)	3.26 (1.04)	3.31 (1.02)	3.35 (0.99)	4.238**

\*p<.05 \*\*p<.01 \*\*\*p<.001

## 5) 경제 요인

경제 요인은 중위소득(균등화소득의 60% 기준)에 따른 소득계층 구분, 경상소득액, 월 생활비, 총 부채액 등의 객관적 경제 요인과 수입만족 정도,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5년 후 경제생활에 대한 예상 정도 등의 주관적 경제 요인을 〈표 6〉과 같이 알아 보았다. 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계층 구분은 최근들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득계층간 이동과 빈곤층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잣대이다. 이러한 소득계층 구분에서 빈곤층은 2006년 26.6%에서 2009년 20.6%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 소득을 나타내는 경상소득의 규모는 2006년 3,526만 7천 3백원(표준편차=2582.49)에서 2009년 4,705만 3천 3백원(표준편차=3585.97)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총 생활비 또한 2006년 254만 6천원(표준편차=156.34)에서 2009년 334만 8천 6백원(표준편차=188.11)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총 부채액은 2006년 3,049만 2천 5백원(표준편차=5631.44)에서 2008년 2,604만원(표준편차=5572.57)으로 줄었으나, 2009년 4,094만 4천 3백원(표준편차=8787.40)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특성으로 알아 본 변수들중 수입만족 정도는 2006년 2.54점(표준편차=0.94)에서 2007년 2.46점(표준편차=1.01)으로 낮아졌으나 2009년 2.56점(표준편차=0.97)로 다시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경제특성중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인식정도와 5년후 경제수준 예상정도는 2006년과 2009년에만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현재의 주관적 생활수준은 2006년 2.43점(표준편차=0.73)에서 2009년 2.49점(표준편차=0.70)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5년후 경제수준에 대한 예상은 2006년 2.73점(표준편차=0.82)에서 2009년 2.85점(표준편차=0.84)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표 6〉 경제적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hi-Square F - test t - test
객 관 적	소득계층					10.768**
	빈곤	291(26.60)	231(24.00)	197(22.30)	178(20.60)	
	비빈곤	802(73.40)	730(76.00)	686(77.70)	686(79.40)	
경 제 특 성	경상소득 (연 평균,표준편차)	3526.73(2582.49)	4026.19(3749.25)	4597.03(4622.52)	4705.33(3585.97)	21.979***
	총 생활비 (월 평균,표준편차)	254.60(156.34)	292.42(186.06)	330.01(190.34)	334.86(188.11)	42.942***
	총 부채액 (월 평균,표준편차)	3049.25(5631.44)	3826.57(9573.11)	2604.00(5572.57)	4094.43(8787.40)	7.497***
주 관 적	수입 만족 (평균,표준편차)	2.54(0.94)	2.46(1.01)	2.49(0.99)	2.56(0.97)	1.954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평균,표준편차)	2.43(0.73)	-	-	2.49(0.70)	-1.649
경 제 특 성	5년후 경제수준 예상 (평균, 표준편차)	2.73(0.82)	-	-	2.85(0.84)	-3.240***

\*p<.05 \*\*p<.01 \*\*\*p<.001

### 6) 우울

조사대상자의 우울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우울 합 점수를 통해 우울의 평균과 우울진단 의심군의 규모를 알아 보았다. 2006년 우울 평균은 9.36(표준편차=10.33)에서 2009년에는 7.34(표준편차=8.38)로 유의미하게 큰 감소세를 보였으나 개인간 편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 절단점인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진단 의심군(가능군)은 2006년 전체의 18.1%에서 2009년에는 12.7%로 점차 감소하였다. 우울의 4가지 하위요인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의 진행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하였다. 하위요인들 중 긍정적 정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우울과 관련된 요소들 중 부정적인 정서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7〉 우울 특성 분석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Chi-Square F - test
우울 합점수	합점수 평균 (표준편차)	9.36(10.33)	8.95(10.36)	7.98(09.04)	7.34(08.38)	8.655 ***
	우울진단 가능군명(%)	191(18.10)	161(17.30)	121(14.10)	106(12.70)	13.584 **
하위 요인별 우울 점수	신체적 저하	0.46(0.63)	0.46(0.66)	0.42(0.60)	0.38(0.57)	3.343 *
	우울 정서	0.47(0.60)	0.48(0.62)	0.43(0.56)	0.37(0.50)	7.255 ***
	긍정적 정서	0.78(0.85)	0.64(0.83)	0.61(0.79)	0.62(0.75)	9.428 ***



대인실패감	0.14((0.43)	0.12(0.40)	0.09(0.29)	0.08(0.29)	7.160 ***
-------	-------------	------------	------------	------------	-----------

\*p<.05 \*\*p<.01 \*\*\*p<.001

## 7) 패널 회귀분석

베이비붐 세대 남성과 관련한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관계 요인, 주거 요인, 건강 요인, 경제 요인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우울의 변화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형의 설명 정도와 오차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고정오차와 회귀계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상관관계가 -0.3514로 비교적 수용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 모형의 적용이 타당한지를 알아 본 F검증의 결과에서도 고정오차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로 투입한 특성들의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전체 분산에서 패널집단의 특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rho=0.644$ ) 모형의 설명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제 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는 나이와 교육수준이 우울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증가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1세 증가하면 우울합점수는 0.813만큼 유의미한 수준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교육수준 또한 우울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측정치가 과거에 이미 완료된 학력의 정도를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자의 연령특성상 교육수준의 변화가 우울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패널조사대상 탈락자와 연차별 신규 진입자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관계 요인으로 투입한 가족관계 만족과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정도의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화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우울정도는 1.061만큼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우울정도는 1.143만큼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객관적인 환경이나 지표보다 주관적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내면적인 우울의 변화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요인 중 주거의 점유형태에 따라서 우울의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시간에 따른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의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가 1단위 증가하면 우울정도가 0.839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주거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와 인식 등의 질적인 측면이 우울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강 요인으로 투입한 만성질환의 유무와 건강 만족도는 본 모형에서 우울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 난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우울과 건강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경제 요인중에서는 유일하게 균등화소득 60%를 근거로 한 중위소득 기준 소득계층 구분이 영향요

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계층 구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잠재적인 빈곤계층을 보다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가구를 중심으로 한 빈곤층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소득계층이 이동하면 우울정도가 1.692만큼 유의미한 수준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빈곤지위가 달라지면 개인내적인 정서상태인 우울감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 외의 직접적인 소득 및 지출 변수와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는 우울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시간에 따른 우울의 영향요인 분석

Fixed - effects (within) regression		Number of obs = 1957						
Group variable (i): id		Number of groups = 1151						
R-sq: within = 0.1141		Obs per group: min = 1						
between = 0.0046		avg = 1.7						
overall = 0.0147		max = 2						
corr(u_i, X) = -0.3514		F(19,787) = 5.34						
		Prob > chi2 = 0.0000						
구분		Coef.	S.E	t	P	[95% Conf. Interval]		
통제변수	지역(0=농촌, 1=도시)	-1.040	2.215	-0.47	0.639	-5.389	3.309	
	나이	-0.813	0.162	-5.01 ***	0.000	-1.132	-0.494	
	교육수준	2.199	1.021	2.15 *	0.032	0.193	4.204	
	종교(0=무, 1=유)	-0.124	0.491	-0.25	0.081	-1.088	0.840	
	혼인상태(배우자유=1, 기타=0)	3.678	2.168	1.70	0.090	-0.578	7.933	
가족 특성	가족 수	-0.481	0.542	-0.89	0.375	-1.545	0.582	
	가족관계 만족	-1.061	0.393	-2.70 **	0.007	-1.834	-0.288	
관계특성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1.143	0.382	-2.99 **	0.003	-1.893	-0.393	
	주거특성	주거점유형태(0=비자가, 1=자가)	0.706	0.998	0.71	0.480	-1.254	2.667
주거특성	주거환경 만족	-0.839	0.355	-2.36 **	0.019	-1.538	-0.141	
	건강특성	만성질환 유무(0=없음, 1=있음)	1.264	0.727	1.74	0.082	-0.162	2.690
		건강 만족	-0.406	0.351	-1.16	0.247	-1.094	0.282
경제 특성	객관적 특성	중위소득 기준 소득계층 구분 (0=빈곤, 1=비빈곤)	-1.692	0.873	-1.94 *	0.050	-3.406	0.021
		경상소득	0.0002	0.0001	1.50	0.134	-0.0007	0.0005
		총 생활비	-0.0006	0.0034	-0.20	0.084	-0.073	0.006
		총 부채액	4.57e-06	6.89e-06	0.66	0.508	-8.96e-06	0.0000
	주관적 특성	수입 만족	-0.134	0.389	-0.03	0.972	-0.777	0.751
		주관적 경제생활 수준	-0.587	0.555	-1.06	0.290	-1.678	0.502
		5년후 경제수준 예상	0.044	0.445	0.10	0.920	-0.830	0.919
_cons		49.173	9.962	4.94	0.000	29.618	68.728	
sigma_u		9.324						
sigma_e		6.930						
rho		0.64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 = 0 :		F(1150, 787) = 1.41	Prob > F = 0.000					

\*p<.05 \*\*p<.01 \*\*\*p<.001

## 5.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특성을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인과관계를 가지는 표적변수를 중심으로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정도는 시간의 진행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개인별 편차는 심한 특징을 보였다. 우울진단 의심군의 규모 또한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나 우울군의 절대적 크기는 매우 크게 나타나 심각한 우울의심군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러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베이비붐 세대 남성 중 우울증 의심군은 12.7%~18.1%로 나타나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40대 남자의 일년 우울장애 유병률 2.9%, 50대 남자의 일년 우울장애 유병률 2.6%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다. 복지패널의 우울증 조사도구보다 역학조사가 전문가에 의해 엄격하게 우울증을 진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 남성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우울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은퇴와 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중년기 남성에 대한 편향된 사회문화적 성역할 기대 때문에 중년기 여성의 우울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과 증상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으려 하는 중년기 남성들의 특징이 고정되면서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Rabinowitz와 Cochran(2007)은 남성의 우울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우울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울정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반면,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즉,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주관적 우울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울을 감정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생활상의 불만과 불편감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심각한 우울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우울 모니터링이나 사정 시 다양한 사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양적 평가와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군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우울선별검사와 모니터링, 예방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결과에서 시간에 따라 우울정도와 우울증 의심군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요인들을 차후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중에서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계층 구분이 우울과 종단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빈곤층에서 비빈곤층으로 소득계

층이 이동하면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빈곤지위의 변화는 소득과 지출변수, 주관적인 경제인식보다 개인내적 정서인 우울감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원진(2010)이 절대빈곤층인 수급자가 탈빈곤을 동반한 수급탈출을 한 경우 우울수준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iech와 Shanahan(2000)의 주장처럼 빈곤 지위의 변화는 경제적 스트레스로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불평등 의식을 조장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남성중 경제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계층의 양적 변화를 살피고 취약대상에 대한 정신건강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경제상태를 지속하도록 돕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정상적인 공적연금 가입비율이 절반에 그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늘리고 지원책을 강화하여 빈곤화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남성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은퇴 후 성공적인 제2의 커리어 개발을 위해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준비와 배치가 필요하다(정경희 외, 2010). 이로써 상대적 빈곤지위로의 이동을 저지할 수 있고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울군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석재은과 이기주(2010)가 제시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다층소득보장 전략도 빈곤층으로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우울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 등의 공적보장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등의 기업보장, 그리고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의 개인보장 영역에 대한 다층적인 제도적 보완과 지원책이 베이비붐 세대의 빈곤지위 이동을 막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요인 중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관계만족 정도는 우울과 유의미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관계와 사회적 친분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우울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변수로 투입한 스트레스 요인 중 나이를 제외하고 우울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관계인식이 사회경제적 여건보다 우울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chran과 Rabinowitz(2003)도 지적하였듯이 남성의 우울은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상관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를 통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대처가 정신적 우울의 악화를 완충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상문, 2008). Uhlenberg(2000)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게 요구되는 화폐적 가치에 기반한 경제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가족, 이웃, 친구 등의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이 축적한 보호, 사랑, 정보 등을 확산하고 차세대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정경희, 2010: 3-4에서 재인용). 이를 위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축소, 직장내 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가구 및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비스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노년기 진입과 맞물려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과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스트레스 요인 중 주거환경 만족 정도의 변화가 우울의 변화와 유의미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주거의 점유형태보다는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 시간 경과에 따라 높아질수록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수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면서 가족생활과 개인 사생활의 근간이 되는 주거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정서적 안녕인 우울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은 주거를 단순히 노년기 이후 경제적 대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향후 노년기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주거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천현숙, 2011). 이러한 현상은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이 노년기에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 동안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부족한 노후 준비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년기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년기 이후에도 현재의 경제적·문화적 풍요를 유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욕구가 주거만족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정경희, 2010). 따라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고려하여 고령자 전용주거지나 자연환경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경희 외, 2011). 또한, 기존의 노인시설이나 노인 1인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수준에서 주거환경을 돌보고 개선해 주는 지속적 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중에서는 나이와 교육수준이 우울과 인과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같은 대상을 반복 측정한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한 점을 감안하면 이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겠다. 복미의 경우 청년기의 우울수준이 높고 중년기에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노년기로 갈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김진영, 2009), 우리나라는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본 예가 적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 남성만 추출하여 단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므로 나이를 고려하여 생애 전반에 걸친 우울변화를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조사가 과거에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고정값인 경우가 많아 의미를 두어 해석하기 힘들다.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논의를 제공하기는 힘들지만, 스트레스 패러다임으로 인구학적 변수와 우울의 관계를 살핌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고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Miech and Shanahan, 2000). 건강특성으로 투입한 만성질환의 유무와 건강 만족도는 본 모형에서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 난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우울과 건강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첫째, 가구경제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주관적 인식보다는 상대적 빈곤지위 변화가 우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둘째,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등

에 대한 만족으로 대표되는 주관적 인식은 우울에 중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들의 우울감소를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된 시점에서 기존의 경제적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의 정책기조가 사회적 생산성과 심리적 생산성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생산성은 가족, 이웃, 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고 각 개인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활동을 늘려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생산성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은퇴 이후에도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생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산적 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한 역할변화와 균형을 이루어냄으로써 노년기 진입 이후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안에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정경희, 2010).

본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변화가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정도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단적으로 분석하여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았다는 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 빈곤지위 변화,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만족 등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에 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적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우울 메커니즘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한계를 가진다.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개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물론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제시된 일부 변수들의 관계로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둘째, 단기간의 중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자의 논지에 따라 정책적·실천적 논의를 제시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강모성·전영주·손태홍, 2008, "기혼 중년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05-134.
- 강창호·박창수, 2009, "주거만족도가 베이비부머의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1(2): 99-116.
- 김양호, 2005, "중년남성의 건강과 사회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03-126.
- 김연옥·유채영·이인정·최해경, 2005, 『가족복지론』, 파주: 나남출판사.
-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김인숙, 1992,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 27-56.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경,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 78-119,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87-113.
- 김희경, 2006, “중년남성과 중년여성의 우울과 신체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인 비교”, 『성인간호학회지』, 18(8): 446-456.
- 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국가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151-174.
- 노병일·곽현근, 2005, “동네의 맥락적 특성이 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네빈곤, 무질서,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7: 5-31.
- 메디컬투데이, 2011, “베이비부머 자살률 경증: 50대 초 男 10만명당 약 60명 자살”, 2011년 9월 21일.
- 박성복, 2011, “노인의 주거와 삶의 만족도”, 2011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5.
- 박소진·홍선경, 2009, “주거를 통한 사회적 과시의 한국적 특수성: 일본과의 비교”, 담론 201, 11(4): 35-61.
- 박영란·홍백의·심우정·부가청, 2010,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06,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석재은·이기주, 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25-74.
- 선우덕,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의식수준”, 보건복지포럼, 174: 19-27.
- 성준모, 2010,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10-133.
- 이미숙, 2003, “사회적 스트레스와 중년기 남성의 정신건강”, 『한국사회학』, 37(3): 25-56.
-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119-152.
-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249-274.
- 이은아·정혜정, 2007, “중년남성의 심리적 위기감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301-329.
- 이정인·김계하·오순학, 2003, “중년 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422-431.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재현, 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279-304.
- 장미자·김득성, 2011, “개인내적 특성과 가족특성 및 직업만족도가 중년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 대기업 근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2): 1-11.
- 장석인,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산업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8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정경희, 2010,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2010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 학술대회 자료집, 1-22.
- 정경희·남상호·오영희·이소정·이윤경·정홍원·이은진·성숙·류건식·신현구·정정숙·천현숙·한정림, 2011, 『베이비붐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2010, 『베이비 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순돌 · 구미정, 2011, “우울 영향요인 : 베이비부모,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 305-324.
- 천현숙, 2011,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8차 베이비 붐 세대 미래구상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자료』, 통계청.
-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통계청 보도자료(2010. 05. 07).
- 한경혜 · 송지은, 2001, “중년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10년도 베이비부모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허준수 · 유수현, 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Brockmann, H., 2010, “Why are middle-aged people so depressed? Evidence from west germany”, *Soc Indic Res*, 97: 23 - 42.
- Chiu, M. Y. L., and Ho, W. W. N., 2006, “Family relations and mental health of unemployed middle-aged Chinese men”, *Journal of Mental Health*, 15(2): 191-203.
- Cochran, S. V., and Rabinowitz, F. E., 2003, “Gender sensitivity recommendations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me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2): 132-140.
- Elsie, W., 1982, The middle-aged adult, in Hill, P. M., and Humphrey, P.(eds.),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life: A Nursing perspective*, New York: Wiley.
- Galea, S., Ahern, D. J., Nandi, A., Tracy, M., Beard, J., and Lahov, D. V., 2007, “Urban Neighborhood Poverty and the Incidence of Depression in a Population - Based Cohort Study”, *AEP*, 17(3): 171 - 179.
- Hartman-Stein, P., and Potkanowicz, E., 2003, “Behavioral determinants of healthy aging: good news for the baby boomer generation”,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8(2): 6.
- Kaneko, Y., Motohashi, Y., Sasaki, H., and Yamaji, M., 2007,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Related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Persons Living in a Rural Japanese Community: a Cross-Sectional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6): 583-590.
- Lang, I. A., Llewellyn, D. J., Hubbard, R. E., Langa, K. M., and Melzer, D., 2011, “Income and the midlife peak in common mental disorder prevalence”, *Psychological Medicine*, 41: 1365 - 1372.
- Link, B. G., and Dohrenwend, B. P., 1989, “The Epidemiology of Mental Disorder”, pp. 102-127 in Howard E. F., and Levine, S.(edi.), *The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College.
- Miech, R. A., and Shanahan, M. J., 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162-176.
- Piazza, J. R., and Charles, S. T., 2006, “Mental health among the baby boomers” in Whitbourne, S. K.,



- and Willis, S. L.(eds.), *The baby boomers grow up: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idlif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abinowitz, F. E., and Cochran, S. V., 2007, "Men and depression : Implications for counselors",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40(1): 1-12.
- Sarmiento, I. A., and Cardemil, E. V., 2009,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on in low-income Latino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5(4): 432-445.
- Williams, T., 2008, "From the 60s to their sixties, baby boomers : Challenges and choices for public mental health", *Journal of Public Mental Health*, 7(1): 4-8.
- Zunzunegui, M. V., Minicuci, N., Blumstein, T., Noale, M., Deeg, D., Jylha, M., and Pedersen, N. L., 2007,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A Cross-national Comparison",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42: 198-207.

##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Stressors and Depression of Men in Baby Boom Generation

Sung, Jun Mo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between stressors and depression using the wave 1~4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by social stress theor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level of depression and depressed group was decreased in the course of time. As a panel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reduction of depression was upward of the income hierarchy,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that social work policies and intervention direction should decrease social stress factors with causality to depression of the men in baby boom generation.

Key Word: men in baby boom generation, social stress, depression, panel regression analysis

[논문 접수일 : 12. 09. 12, 심사일 : 12. 09. 25, 게재 확정일 : 12. 10. 31]